

일제 억압 맞선 선조들 정신 기리며 명품코스 달렸다

사진=나명주·최현배·김진수 기자



제54회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전국 2000명의 마라톤 동호인들의 성황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민주화의 성지 5·18 민주광장을 출발해 금남로와 충장로 등 광주 도심을 달리는 매력과 영산강변을 달리며 남도의 봄을 느낄 수 있는 명품코스로 구성되어 전국의 마라토너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코스를 한발 한발 내달리며 일제의 억압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싸운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렸다.

새 봄을 맞이하며 수준 높은 대회를 만들어 준 마라토너들의 모습을 화보로 구성했다.



민주광장에 모인 마라토너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54회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1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아! 힘들어 하프코스 참가자가 험거운 표정으로 결승선에 들어오고 있다.



아빠 완주했다! 하프코스에 참가한 육군 제31보병사단 윤민우 소령이 아들 도윤군과 함께 결승선에 들어오며 완주의 기쁨을 누렸다.



인형 옷 입을 캐나다인 인형 복장을 하고 풀코스를 완주한 리암 왓슨(28·캐나다·오른쪽)이 동료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동료들과 함께 무등마라톤 회원들이 출발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피로 풀어드립니다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결승점을 통과한 참가자들의 근육을 풀어주고 있다.



풀코스 힘찬 출발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54회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1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풀코스 참가자들이 출발신호에 맞춰 달려나가고 있다.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만세! 하프코스 참가자들이 출발 전 만세삼창하고 있다.